

한국민인 당신은 그래도 행복한가?

관습과 문화, 이데올로기는 제쳐두고서, 적어도 여성을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이 아니며 민족과 국가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한국민의 상징이 되는 기회는 국가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성이 선택적으로 제공한다.⁴⁾

촛불시위에서 '태극기를 꽂으며' 까지.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여성과 어린이들 또한 행위자였지만 위의 세 가지는 남성적인 저항의 형태를 보여준다. 남성적인 저항의 방식은 故신태준·심미선씨 사건을 국가 간 불평등의 문제로, 성별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가지는 촛불시위에서 대형 성조기를 군중들의 머리 위에서 찢은 다음, 태극기를 펼쳤던 것인데, 국기가 국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는 선/악 이분법을 표현한다. 그러나 국가의 주체가 아닌 소수자의 시각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양가적일 수밖에 없다. 성조기를 찢는 것이 미군,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미국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태극기로 옹호되는 것은 한국군과 한국내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는 정부와 지배구조인가! 성조기와 태극기의 이분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국가(의 상징)와 국민을 동일시하는 것은 국가 내에서 일상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비가시화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단지 그 공간(태극기가 부상하는)에서만 위태롭게 국민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여성들은 태극기를 '도구'로 '이용'해서 웃을 만들어 입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응원의 공간 안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태극기를 '입고' 미대사관에 침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분법에 기초한 운동은 이슈를 명확하게 하고, 감정을 극대화시키지만 좀더 심층적이고 구조화된 문제들은 잊게

4) 참고 캐서린 문, 2002:4장.

만들 소지가 많다. '살인미군 처벌'과 '주한미군 철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주의와 성차별주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규정하고 강화하는데, 그러한 형태는 나머지 하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를 꽂으며>라는 재현물에서 "미사령관 부인과 미영부인을 성노예 삼는 것으로 故신태준·심미선씨의 죽음에 복수하는" 방식이다. 군대의 장갑차에 의해 숨진 피해자를 위해 강간으로 '적의 여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여성의 이해와는 무관한 군사주의의 논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⁵⁾ 요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옹호되는 여성 폭력을 담은 재현물은 "<007>이 되면 <태극기를 꽂으며>도 되야 한다"⁶⁾는 논리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동물에 대한 학대를 담은 영화가 국제영화제로 진출하려고 할 때 유럽사회가 가진 동물에 대한 애정과 인식수준을 고려해서 영화는 실제상황이 아님을 공지하는 반면, 여성에 대한 학대가 수많은 영화를 비롯한 재현물에서 다루어져도 그것은 그대로 수용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는 사회적 가치와 맥락이 개입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태극기를 꽂으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남성의 판타지이자 현실이며, 그것은 또한 익명의 남성집단이 등장하는 사이버에서 셀 수 없이 복제되었다.

진정한 추모를 위해

촛불시위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추모나 반미나, 시민이나 빨갱이나 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논쟁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故신태준·심미선씨의 추모는 애국과 '대한의 힘'으로 촛불을 든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 촛불시위 사회자의 말대로 "더

5) "일반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군사화를 유발하는 군사주의의 매개는 여성성/남성성의 이분법이다. 군사주의의 작동은 남성으로 하여금 남성우월주의를 각인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 비하·성적대상화를 유도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이 방식은 군대가 남성들에게는 남성들이 그들의 우월성을 각인하는 동시에 여성을 성적존재로 폄하하는 장임을 의미한다." (김정미·정추영, 2001:169)

6) http://www.ddanzi.com/ddanzilbo/movie/interview/interview_07_02.asp

이상 미선이와 효순이가 나오지 않도록”하는데 있어서 애국심은 적어도 미군에 의한 피해자가 아닐 때 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녀들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고, SOFA협정이 불평등해서지만, 세계적으로 군대가 온존하고 전쟁준비가 일상화되고, 그로 인해 국가안보가 최우선의 가치가 될 때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회가 끝난 후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상적인 성폭력의 위협에 놓여있는 여성으로, 편견과 불평등한 동정의 시선 아래 놓여있는 장애인으로,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성적소수자로, 인종차별을 당해야하는 이주노동자로, 통제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청소년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은 온갖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안전보장은 미약한 상황에서,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한 전쟁수행의 방편인 국가안보 논리로 인해 대다수의 인권은 뒤로 밀려나왔다.⁷⁾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국가를 나와 동일시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차별과 폭력에 분노하는 감수성을 가질 때 참혹한 포스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이분법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어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 일어나 수십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주변사람을 잃은, 잘못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상적인 안전보장은 핵으로, 군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오히려 군대는 전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은 불가피하다.⁸⁾

부시가 지목한 이라크와 북한이라는 적은 정작 이라크와 북한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적이 아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적을 상징하고 그 적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군대의 피해자인故신효순·심미선씨에 대한 진정한 추모의 움직임이 좋은 군대와 나쁜 군대의 이분법을 넘어서 군사주의와 차별에 대한 반대로 나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출처: 이화여대 교지 『梨花』 66호

<참고문헌>

- 정유진, 「오키나와에는 왜 “양키 고 홈” 구호가 없을까?」, 『당대비평』 2001년 봄호.
 캐서린 문, 『동맹속의 섹스』, 삼인, 2002.
 이남석,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2001.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1장.
 김정미·정추영, 「페미니즘과 군사주의에 대한 시론」, 『여성적 사고·지구적 저항』,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2001.
 김엘리,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 <http://safe.jinbo.net/>
 김은실,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994년 10호.

7) 참고 정유진, 2001.

8) 참고 김엘리, 2002.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fucking USA' 의 어이없음

시타 (sitafight@freechal.com)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나옵니다!" 반전시위에서 'fucking USA' 라는 노래를 틀면서 단상 위의 남성운동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 여성주의자 친구는 어이없어 했었다. fucking USA, 어원을 따지자면 '미국을 강간하자' 가 되는 이 가사를 힘찬 목소리로 코러스까지 더해 시종일관 반복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반전'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신나게 이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니 소름이 끼친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노래를 반전시위 장소에서 트는 사람들이 '특별히' 가부장적인 것은 아니다. 기지촌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미군이여, 강간은 자국에서!' 라고 쓰였던 플래카드, 서울역 근처 담벼락에서 본 'SOFA협정 개정하여 우리 처녀 지켜내자!' 는 문구,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한 집회에서 '강간하려면 너희 땅에 가서 하라' 했다면 '어르신', 미사령관 부인과 미 영부인을 성노예 삼는 것으로 故신호순·심미선씨의 죽음에 복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 (<태극기를 꽂으며>), 미국과의 굴욕 외교를 비판당시고 영부인을 강간하는 미군과 이를 막지 못하는 김대중 전(前)대통령을 만화로 그려(<악몽>) 어느 '진보' 주간지에 딱 하니 실었던 남성작가 등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이 수많은 예들을 상기하건대, 'fucking USA' 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 '특별할' 것은 없다는 얘기다. (하긴, 그리고 보니 대학시절 '운동권' 남자동기 녀석은 '강간당했네~ 강간당했네~' 라는 후렴구를 가진 노래를 만들어 술자리마다 불러 제끼기도 했다.) 심지어 이것은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fucking USA' 의 어이없음

"여성성을 폄하하고 남성성을 권위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부여하는 남성성의 우월 의식은 전쟁의 과정과 승패를 묘사하는 은유법에서도 표출된다. 지난 걸프전쟁 당시, 공격은 강간으로 표현되고 (the rape of Kuwait), 이슬람교 식의 질을 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의 들려진 엉덩이 뒤로 미사일이 꽂힐 듯한 그림은 침략의 굴욕성을 강간(fuck you)의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약자의 속성은 여성성과 동일시되면서 가치 절하되는 것이다." (김엘리, 2002년 SAFE 서울 국제회의 자료집, 미간행)

진보와 보수. 이 두 단어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정 반대의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는 쉽지 않다. 전쟁을 일으키든 전쟁에 반대하든 그 주체는 남성이고, 여성은 구해주어야 할 희생자 / 보호해야 할 '조국의 딸' /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라는 상징적 실천을 진보와 보수는 사이좋게 공유한다. 사실 '진보' 운동의 가부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미' 세력에 국한된 것도, 한국 사회운동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의 역사 또한 길어서, 이제는 '진보' 운동의 이념, 가치지향, 문화, 조직, 언어 등 모든 것이 가부장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더 이상 낮설지 않은 시점까지 왔다. 그런데도 'fucking USA' 가 불려지는 순간마다, 강간이라는 일상적 폭력 - 이것은 대다수 여성들이 경험하는 '전쟁' 이다 - 은 이토록 효과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데? 여성운동에는 동의하지만 대의를 위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논리가 '전쟁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해 반전운동을 멈추어야 한다' 는 보수파들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데? 권력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성별권력관계는 그것이 권력관계로 보이지조차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

다시 노래로 돌아가 보자. 흑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fucking' 을 '강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단지 '옛먹어라' '제기랄' 등으로 쓰이고 있는 일반적 용례를 무시하는 과민한 페미니스트의 반응이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

러니까 그건 '단순히 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자. 그것은 왜, 어떻게 욕인가?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몸짓(아마도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은 왜, 어떻게 'fucking'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가? 사실 이 반론은 '씨발'이라는 '욕'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기되는 종류의 것이다. '씹'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속어이고, '씨발'의 본래 말은 '니 에미 씹할'이다(이것은 'fuck'의 일상적 용례 중에 가장 흔한 것이 'mother fucker'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상대방의 어머니를 '씹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욕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가부장적 대상화와 폭력의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ucking'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그것을 '강간하라'가 아닌 '엿먹어라'로 번역한다 해도, 그것이 '욕'이 되는 것은 가부장제의 의미망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fucking"이라는 단어는 '강간'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는 성별권력 관계, 젠더화된 재현체계 속에서만 비로소 그 ('욕'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반전 집회에서 'fucking USA'를 부르는 것이 '단순한 반미감정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뻔센다. 'fucking USA'라는 노래를 틀고 부르고 따라하는 것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용한 수단일 뿐이라는 변명은, 자신이 내건 명분 - 그것이 반미이건, 반전이건, 평화이건 - 이 '남성의' 반미, '남성의' 반전, '남성의' 평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여성문제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문제라고들 하지만 정작 '부분'적인 것은 바로 그들, 그 운동이다. 'fucking USA'가 외치는 반미는 남성의 반미이며, 그런 식의 '반미'는 남성의 경험/인식/삶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 문제', '전체 운동'으로 보이는 것은 남성을 보편적 인간으로 정의하는 가부장제의 효과다. 일본군 성노예제나 세르비아 정부군이 설치했던 강간캠프의 예에서 보듯, 강간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화'시에도 일상적으로 자행되며 전쟁이 벌어지면 더욱 집단적·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을 강간하자'는 노래는 전쟁 반대가 아니라 전쟁의 재연일 뿐이다.

글 첫머리에서 이야기했던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난다. 몇 명의 여성주의자들이 'fucking USA'라는 노래를 듣고 단상으로 찾아가 항의하며 노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주최측'은 "하지만 사람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라며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녀들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한다. "우리도 사람이예요." 반전 '히트송'이 갖고 있는 남성편향이 화장한 햇볕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제 '진보' 운동의 오래된 그 가부장성에 대해 지긋지긋해 하는, 나아가 지긋지긋하다고 내놓고 말하는 여성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남성질서에 적응하도록, 남성의 언어를 습득하도록, 남성의 노래에 감동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살아남아 ('진보' 운동 안과 밖 모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들이다. 일상적 폭력과 전쟁시 폭력의 구조적 연관성을 젠더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 반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들 - 이들의 목소리가 삶의 곳곳에 스며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반전, 새로운 평화를 상상할 수 있다.

참고 사이트 보기

- 언니네 사이트 최근 특집 "계속 전쟁에 반대한다"

(http://www.unninet.co.kr/spc/s_view.asp?sort0=1&sort1=37&sort2=1)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홈페이지 (<http://www.kwaw.org/>)

출처 : 디지털 창비(www.changbi.com/webzine) '음악의 바다' 칼럼 2003. 5. 10.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www.rawa.org

미나 (RAWA 의 초기지도자)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깨어나, 불탄 아이들의 재 속에서 폭풍우가 되었다.
 나는 형제들의 피가 흐르는 개울에서 깨어났다.
 내 나라의 분노가 내게 힘이 되었고,
 불타버린 마을들이 나를 적을 향한 증오로 채웠다.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무지의 닫힌 문을 열었고,
 나는 황금빛 팔찌와 작별하였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오 동포여,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니,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맨발로 방랑하는 집 없는 아이들을 보았고,
 나는 상복을 입은 피문은 손의 신부들을 보았고,
 나는 감옥의 거대한 벽들이 그 탐욕스러운 위장에 자유를 삼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저항과 용기의 시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나는 마지막 호흡과 피의 물결, 그리고 승리 안에서 자유의 노래를 배웠다.
 오 동포여, 오 자매여, 나를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하다 부르지 말라.
 나, 온 힘을 다해, 내 땅의 자유를 향한 이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있으니,
 나의 목소리는 수천의 깨어난 여성과 함께 울리고,
 내 주먹은 수천 동포들의 주먹과 함께 쥐어져 있다.
 이 고통과 노예의 족쇄를 부수기 위해,
 나는 당신과 함께 내 나라의 길을 내딛었다.
 오 동포여, 오 자매여,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니,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번역: WAW번역팀)

4

소수자들이 본 전쟁

- 77. “도망도 못 가고”(박영희)
- 79. 전쟁은 전형적인 여성상을 요구한다(조이여울)
- 82. 전쟁을 싫어하는 한 평범한 레즈비언의 이야기(케이)
- 87. 전쟁은 여성과 자연에게 무엇인가?(기리새롬)
- 95. 송탄의 미군부대 클럽 거리에서 미국의 아프간 침략을 상기하며(이수진)
- 98.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조현진)
- 105.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원)
- 111. 우리의 관심을 함께 한다면(진경)

“도망도 못 가고”

박영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집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끌고, 밀고, 애들을 업고 피난길 떠나는 장면들이 TV의 월드뉴스프로에 화면 가득 보이면 장애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다.

“우린 전쟁 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해. 우린 어디로 도망도 못 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가겠어, 도망도 못 간다니까.”

“요즘 전쟁 나면 갈 곳도 없어, 피난 갈 곳이 어디 있겠어”

TV에서 전쟁 중인 나라의 피난 행렬만 나오면 어떻게 그리도 똑같은 말들을 하는지...

나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이라는 말을 들으면 전쟁 난 날로부터 나의 생활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없다. 비장애남성들은 군대로 간다든가 비장애여성들은 피난 가기 위해 자신에게 소중한 것 중에 무얼 챙길까를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다.

언제였던지, 몇 년 전이었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던 어느 날,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다는 긴급속보와 함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있고, 피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긴장감에 쌀을 사들이고, 라면을 사들이고, 옷가지를 어찌고... 이러한 말들이 매일 매일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정경(?)들 속에 나는 관망자에 지나지 않았다.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나 보다.

아마 전쟁에 대한 긴장이 더 고조될 때 쯤이었을 것이다.

할머니 말이 "영희야, 전쟁 나면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너랑 나랑은 남아있자"라고 하셨다. 그때도 장애가 없는 동생들은 모두 데리고 피난가면서 왜 나만 남아야 하느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에게 나를 업고 기나 긴 피난길을 간다는 것은 무리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꼭 "어떻게 너를 데리고 가겠니?"라고 말 할 것 같아서 난 단 한마디도 못하고 할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이후에도 전쟁에 대해서 어떤 긴장이 있거나, 먼 나라의 전쟁 피난민의 풍경만 보아도 난 그들의 무리에도 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고는 한다.

어떤 최악의 상황들에서 생명 중에도 존재가치의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에서 언제나 최하위에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

힘없는 자의 운명을 사회는 방관하다 못해 무기력을 강요하고 그렇게 말 없이 죽어가라고 한다.

그러한 것을 거부하거나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주장할 힘도 없는 장애여성들은 그렇게 죽어간다. 내가 바로 그 장애여성이다.

그래서 전쟁이 내 앞에 벌어지면 난 무엇을 계획할 수가 없다. 다만 다가올 많은 폭력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공포스러울 뿐이다. 그러한 폭력들을 경험하지 않고 죽을 수 있기를...

많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갔을 장애여성들을 생각해 보면 '인권'이란 말도 사치스럽다.

전쟁은 전형적인 여성상을 요구한다 동성애자 여성과 전쟁

조이여울 (WAW 회원)

사회불안정 요소로서의 동성애자 낙인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테러의 요인이 페미니스트, 동성애자들과 같은 사회 불안정을 부추긴 이들 때문이라 했다. 사회가 급작스럽게 불안정해질 때 사람들은 그 공포의 요인으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지목한다. 즉 징벌의 대상, 혐오의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 대상이 다수의 사람들이 될 리는 만무하다. 이미 일탈 낙인이 찍힌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소수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전세계에 엄청난 속도로 과급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라기 보다 미움의 대상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닐까 싶다. 이들을 범죄화하거나 질병화시켜 배제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표출하는 전쟁

폭력은 차별과 혐오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폭력의 결정체이자 폭력이 정당화되는 전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차별과 혐오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장이다. 독일은 유대인에서 시작해 점차 범주를 넓혀 게르만이 아닌 민족을 차별, 학살했으며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 마크(역삼각형 분홍색)를 달게 해 격리시켰다. 그들의 인종차별은 소위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것이었는데 그 더러움의 극단은 동성애자였다.

전시 그리고 전후 여성의 자리

6.25 당시 사례들을 찾아 보면 가문을 중시하는 집안들이 만여년만 집에 남겨 두고 피난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을 비워선 안 된다는 것인데, 집을 지키는 역할은 여성 즉 안사람의 몫이었다. 결국 며느리는 시댁의 집 건물과 운명을 같이 했다.

전쟁은 극도의 혼란이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이다. 사회가 안정을 요구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여성이다. 여성에게 여성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한자로 안정을 뜻하는 安은 집 안에 여성이 있는 모습에서 따온 문자다. 전쟁이 끝나고 군인으로 동원되었던 남성들이 돌아오면, 사회는 집밖의 일들(직장)을 그들에게 내어 주고, 여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전쟁 직후엔 Baby Boom 시대가 열린다. 국가는 손실된 국민의, 혹은 민족의 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 역할은 여성이 담당하게 된다. 출산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모성 이데올로기가 떠오르고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지키는 존재로서 이미지화된다. 전쟁이 끝난 이후 복구단계에서 여성은 곧 모성이다. 모성은 희생이며, 어떤 고통도 인내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성을 기다리고 가정을 지켜내야 하며, 또한 남성의 핏줄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미덕으로 여성들에게 강요된다.

여성의 몸은 전시에나 전후에나 강간의 대상, 혹은 집단강간의 대상이 되지만 또한 국가구성원을 충원하고 부계혈통을 보존하는 도구로서 이용된다. 여성의 몸은 전쟁터가 된다.

전통적 여성상과 동성애자 여성

여성에게 모성이 강조될 때, 여성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자리가 강요될 때, 가장 억

압 받는 층은 다름아닌 동성애자 여성이다. 동성애자 여성들은 바로 그러한 여성의 자리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자리가 체질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회는 여성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여성을 용서하지 않는다 사회불안정 요소로서의 일탈 낙인은 이런 때 가장 악랄하다. 자립을 원하는 여성,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 남편의 대를 잇는 도구가 되기 싫은 여성들은 세상을 거부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상에 자신을 끼워 맞추면서 살아왔던가.

전쟁은 그 자체로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표출하는 집단적인 폭력이지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시기나 전쟁이 지나간 자리 역시 전쟁의 참혹함 이면에 있는 공포와 혐오가 그대로 깔려있다.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전쟁이란 범죄와 가장 상충되는 것이며, 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여성들이 어렵게 얻어낸 권리는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수포로 돌아간다.

전쟁을 싫어하는 한 평범한 레즈비언의 이야기

케이(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활동가)

전쟁은 또 일어나고

부디 전쟁만은 하지 말아 달라 했던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는 부시 행정부의 귀에 닿지 않았다. 닿았다 해도 관료들은 그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며 귀를 씻었을 것이다. 지난 봄, 그렇게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또 한 번 '평화'를 위한 전쟁을 개시했다. 선전포고를 알리는 기사들로 모조리 도배된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속보란을 보며 내 불안과 공포의 증폭에는 몇 배로 속도가 붙었다. 나는 무작정 압담했다. 지난 시간동안 이라크전 개전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 왔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까닭에 대해 주위의 친구들과 나름의 근거를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최종적 승격을 지닌 선전포고가 뿌려졌을 때는 손가락도 까딱 못 할 만큼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개전 첫날,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 미국을 규탄했다. 그리고 개전 전부터 있었던 흐름을 이어 반전 운동은 계속됐다.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속속 터져 나왔다.

눈을 비비고 바라본 벽보-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내가 다니는 학교 벽에 부착된 한 벽보 앞에 멈춰 섰다. 그 대자보의 제목은,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였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문구였을 것이다. 사실 그 자보가 붙은 게 개전 전인지 후인지, 자보에 쓰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생각나는 게 없다. 짧은 글씨였을 정확한 제목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와 유사했던 제목은 그것이 담고 있는 단어들만으로도 나에게 상당한 충격을 남겼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전쟁이라니. 그건, 자보가 게시된 후 포비아들

이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전쟁을 반대할 줄 안다든가 동성애자라서 전쟁을 반대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뉘앙스가 결코 아니었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에 반대한다', '폭력들이 없어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나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난 악착같이 깨물었던 이빨에서 힘을 빼고 풀어진 표정으로 한참 동안 자보 앞을 서성였다. 저 제목과 만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저기 쓰여 있는 거 맞지? 하며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봤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집회에 나가서 감히 소리 높여 발음할 엄두도 못 내는 구호,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겠노라는 말에 속으로만 담아서 외칠 수 있는 구호, 그렇지만 절박했을 때 만나 더 반가웠던 구호.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가 무서운 나, 전쟁이 무서운 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호모포비아는 아무리(!) 신경 쓰지 않고 회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매 순간 어김없이 나를 움츠러들게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만연한 것이 호모포비아이다 보니 내성도 생기고 매일의 삶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법도 한데 그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남자니까 여자 입술에 입 맞추고 싶은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나? 욕망은 서로 다른 육체에게 느끼는 거지. 허허허. 뭐 동성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 보자고.'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대학생이라면 시대가 지식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한다며 침을 튀길 때, 나는 문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 코드의 장면이 스크린을 지나갈 때 극장을 채우는 야유의 코웃음들에 몸이 순식간에 불덩이같이 뜨거워진다. 때때로 옆 사람을 톡 쳐서 나를 보게 만든 뒤, '왜 저 장면이 그렇게 이상해요? 나도 동성애자예요.'라고 말해 볼까, 그렇게 하면 아주 톡톡히 놀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사람 당장 내일 병원 가서 에이즈 검사 받을지도 몰라, 하는 꿈을 꾸어보기도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거의 백프로 불가능한 일이다. 교실에서, 극장에서 한 번 제발이 저러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력감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호모포비아를 심각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나는 길거리를 거니는 남녀 커플의 다정
 한 모습을 보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커플 맺기 코너를 보거나 할 때, 대부분 그저
 무심하다가도 한 순간 갑자기 모든 나의 존재감을 박탈당한 느낌이 들면서 몹시 분
 노하기도 한다. 거리에서라면 보통 인파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 멍청하게 서서
 완벽한 고립감을 맛보게 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중이었다면 마치 지난 모든
 경험과 세월을 상실한 듯 막막해지는 것이다. 이런 순간들에는, 치근덕거리는 남자
 에게 자신은 레즈비언이라 당신과 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가 살해당한 여자아이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거리를 두고 반응을 한다.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
 기로 여기며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부정한다. 잠시 후에 다소 회복이 된다 해도, 그
 렬 때면 정말 '나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렬해서 두렵고 슬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니 나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당연하
 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치기도 하는데 그 지경에 이르면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상시적으로 닥치는 괴로움과 혼자서 치러내는 이 작은 투쟁들은 마음과 몸을 쑥대
 발로 만들어 놓기 일쑤다. 한 사람이 자신이 다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이성애중심주의는 강고한 것이다.

전쟁 역시 나에게 그런 느낌이다. 개개인의 생존의 조건을 박탈하며 궁극의 무력
 함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 모든 폭력의 응집체.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되건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는 무자비한 시공간. 기본적으로, 힘이 없
 는 사람을 궁지로 모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호모포비아
 와 전쟁은 닮았다.

어릴 때를 돌이켜 봐도, 어른들이 보는 뉴스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예닐곱 살의
 나에게 아주 생생한 공포였던 것 같다. 매일 밤 집에서 가장 먼저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에게 "전쟁 나면 나 꼭 깨워야 돼, 알았지?"하고 거들 대답을 청하고서야 간신히
 잠이 들곤 했으니까. 그 일종의 '잠들기 전 확인 의례'는 꽤 오래 지속됐다. 초등

학교에 입학하고서 우리 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라는 걸 알고는 더 심하게 불안해
 하기도 했다. 휴전은 곧, 언제라도 다시, 말로만 들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피난을 가던 중에 온몸에 땀띠가 나자 여섯 살도 안 된
 여자아이였던 엄마가 사지를 남자 어른들에게 붙들려 마취도 못 한 채 환부를 절개
 하고 고름을 긁어냈다는 이야기며, 갓난 아기였던 엄마의 여동생이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마에 죽어간 이야기들은 어린 나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이기도 했지만
 그에 앞서 무서움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거란 소리가 아닌
 가. 일상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그때도 가졌다는 게 조금 신기하
 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 거였다. '전쟁이 나서 도망가야하게 되면 혹은
 집에 폭격을 맞으면, 오늘 아침처럼 엄마랑 물을 튀겨가며 세수를 할 수도 없고, 집
 앞 구멍가게도 들락거릴 수 없게 될테니까 먹을거리가 금세 떨어져서 얼마 안 가 완
 전히 굶게 될 거고, 총이나 대포에 맞아 상처가 아픈데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서 점
 점 더 아파질 터'인데 어떻게 하나. 정확하지 않았던 느낌의 결을 요약하자면 그렇
 다는 것이다.

부시가 이라크 공습을 끝내 감행하겠다고 결정하고 최후통첩을 했을 때, 나는 전
 신이 육신거렸다.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한 절망과 어떻게든 유호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을 실제로 막지 못한 나 자신의 미약함에 대한 새삼스
 러움이 겹쳐 쇼크가 왔고 몸이 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견디기 힘든 무엇에 대한 민
 감하고 적나라한 반응은 그러한 반응을 유발한 어떤 특정한 상황들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맥락을 갖게 마련인데, 그 때도 저리고 추시고 피부 밑이 간지러워 살갓을 잡
 아 뜯고 싶어지는 그 통증이 낫설지 않았다. 수시로 연습했던 '정상성'의 중량감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혀 왔던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임박했을 때,
 2차 대전 시기의 나치에 의한 동성애자 대학살 등을 굳이 떠올린 것도 아니고 다만
 모종의 괴로움과 유사한 패턴의 아픔을 느꼈을 뿐인데도 나는 전쟁이 얼마나 사람
 을 망가뜨릴 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된다

어제도 오늘도 전쟁 발발 위기에 대해 각종 매체에서 떠들어 댄다. 미국의 대북 전쟁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다. 어릴 때는 개념이 희미해서 그저, '휴전 상태니 언젠가 전쟁을 재개하여 결판을 봐야만 하는 거구나, 무섭다' 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속셈이 조금씩 보이고, 점점 그 국제 정세의 동향이 재수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계속될 전쟁 속에서 자살한 저항들 역시 이어질 것이다. 어떤 명분도 전쟁을 옳게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프거나 무섭지 않고 살 수 있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저항들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전쟁은 여성과 자연에게 무엇인가?

기리새롬

전쟁을 원하는 자, 누구인가?

지난 10월 28일 아프간 북부 가니케일 마을은 미국의 공습으로 완전히 쓸대밭이 되어 버렸다. 흙으로 만든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손되었고, 하루아침에 마을 주민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¹⁾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노약자와 여성들이었고, 죽어간 사람들도 역시 이들이었다. 미국의 수력 발전 시설 파괴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식용할 물이 없어 주민들은 도시를 떠나고, 농지에 물을 대지 못해 기근은 더 악화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려 100여 명이 죽어갔고, 이 와중에서도 미국의 웅단폭격이 계속되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²⁾ 아프간 남부 헬만드 지방에 위치한 카자키 댐과 수력 발전소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일곱 차례나 미국의 공습을 받아 심각하게 손상되어 댐의 물 유출이 우려된다는 소식³⁾도 들려오고 있다.

경악을 금치 못할 9.11 테러 사건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세계는 다시 미국의 성난 분노가 불러들인 또 하나의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반(反) 테러리즘'의 기치와 탈레반이 내세우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애국심'이 충돌한 가운데 정작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전쟁 당사자들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다.

미국의 공격 시기가 임박했을 때 탈레반은 각 가정에서 전쟁 참여 가능한 성인 남

1) 연합뉴스, "공습으로 폐허가 된 아프간 마을", 2001년 10월 28일
2) 연합뉴스, "아프간 민간인 오폭, 약품부족, 식량난 3중고", 2001년 11월 2일
3) 연합뉴스, "탈레반, 미 공습으로 댐 붕괴위기", 2001년 11월 1일

성과 젊은 청년, 심지어 어린 소년들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각 집에서는 여성들의 통곡소리가 마을을 뒤덮었다. 남아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미국의 폭격 세례에 잠을 자다가 죽어가고, 먹지 못해 죽어가고, 피난을 떠나다 극한 추위에 죽어간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죽어야하는지 모른다. 미국의 테러사건은 정말 유감이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에 열중한 나머지 아무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사고는 어떤 사회적 인식 속에서 가능한가? 그리고 그 희생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전쟁이 단순히 전쟁수행자(남성 군인)들의 목숨만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군인은 전장에서 죽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는 전쟁 신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전쟁은 남성들이 자신의 강한 남성성을 확인하는 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희생된 그들을 위해 비장하게 목념을 올리며 그들의 죽음을 기린다. 그러나 전쟁에서 일차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무기를 든 그들이 아니라, 무장하지 않은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이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여성과 자연이 전쟁의 일차적 희생자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아프간 보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전쟁의 일차적 희생자는 여성과 자연

전쟁은 '아군 대 적군'이라는 이분법이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나/우리'의 상대편에 해당하는 '타자화된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타자는 나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지배하고 싶은 대상이다. 그동안 전시나 평시에 상관없이 가부장제가 확립된 이후의 역사에서 여성과 자연은 남성과 인간의 타자로 존재해

오고 있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전쟁에서의 살상과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여성과 자연의 몸은 일차적 파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편의 여성과 자연의 몸은 일차적인 정복 대상으로 표상되면서 강간과 무차별 폭격이 서슴없이 자행된다. 여성들은 '전쟁 전리품'으로 무장세력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연은 적의 은신처/영토를 함락시킨다는 명목 하에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폭력은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 무기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1982년 과테말라는 반란군 진압을 위해 경찰, 군인, 민병대를 투입 국가 주도 하에 여성의 몸을 전략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산악 고지의 전투 지역에서 모든 군인들이 마야족 여성들을 검탈했으며,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강간당하지 않은 아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다.⁴⁾

아프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반군과 탈레반군의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자아이들을 비롯한 부녀자 강간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

여성의 순결을 가족의 명예이자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강간이야말로 반대세력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제일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여성 강간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듯 자연도 무작위적인 공격과 파괴를 당하게 된다. 첨단 무기를 도입한 현대전은 공격 목표를 정확히 조준해 공습하기 때문에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9.11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섬멸하기 위해 그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동

4) 빅토리아 리치, "과테말라 젠더 폭력", 「세계화에 물만있는 여성들을 위한 자료집」,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2001, p. 186
5) 한비아, "‘앗살라 알레이쿰’의 수난", 한겨레 신문, 2001년 11월 1일

굴들을 주 공습 표적으로 삼았다.

그 동안 미국 정보기관들과 특수부대들은 현지 반군들의 협조 하에 빈 라덴의 지하 방커들을 추적해 왔지만 은신처 파악이 어렵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 개의 지하 방커들을모조리 파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⁶⁾ 공격 목표는 공격자의 편이를 위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몇 가지 단편적인 예만 보더라도, 여성과 자연은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끊임없이 타자임을 확인시켜야 '나/우리' 전쟁의 명분이 정당화되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쟁은 여성의 몸을 일차적으로 유린함으로써 여성의 출산능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양육자로서 여성이 전쟁 수행을 위해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 부양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부담과 고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서 약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망인이 가족 생계를 혼자 꾸려가야 하는 탓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실정⁷⁾이다. 이들은 아이와 가족을 먼저 먹여 살리느라 영양 결핍⁸⁾에 시달리는데 이는 높은 출산 사망률로 이어진다. 특히 탈레반의 극악한 반(反) 여성적통치로 남성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은 의료시설과 여성 의료인의 태부족으로 의료의 손길 한번 변변히 받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⁹⁾

6) 연합뉴스, "빈 라덴 은신처 지하방커와 동굴파괴 폭탄", 2001년 10월 30일

7) 연합뉴스, "아프간 주민, 정신건강 위기로 이종고", 2001년 11월 8일

8) 어머니의 영양 불충분은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6주 이내로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울 겨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유니세프가 지난 10월 15일 경고한 바 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같은 날 전 세계의 어린이 중 3억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은 여자 어린이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간 아동 10만 명 아사 위기", 2001년 10월 16일

9) 라와(RAWA: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는 "아프간 여성들의 상황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아프간 여성들은 "남자의사에게 진찰 받을 수 없고 가족계획도 금지되었으며 여성은 수술을 받을 때도 수술의료진에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여성은 집에 남아야하고,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는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여성노동권 불가 내용은 의료 부문에서 극히 일부 허용되는데, "오직 카불의 몇 개 병원에 약간 명의 여자 의사와 간호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조차 미국의 대대적인 카불 공습으로 의료시설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 진료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http://treechal.com/kwaw/>)

생명의 순환(생성-성장-소멸-재생)을 통해 사람과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자연의 재생산 역할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1년 10월 25일 미국은 아프간에 집속탄(cluster bomb)을 투하했다고 시인했다. 집속탄은 투하시 수많은 작은 폭탄으로 분해돼 넓은 지역에 살포되며 지면에 닿는 순간 폭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중 평균 10% 정도는 폭발하지 않고 지뢰처럼 수년간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나중에 이를 건드리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성이 높은 폭탄이다.¹⁰⁾

전쟁이 끝나다 할지라도 다시 땅을 일구어 살아야 하는 아프간 현지인들의 목숨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결국 기아에 시달리다 죽게 될 것이다. '탈레반에게는 폭격을, 아프간 주민에게는 식량을'이라는 양면 전략으로 미국이 식량을 하늘에서 뿌려주었지만, 이미 20년이 넘는 내전으로 곳곳에 심어진 지뢰밭에 식량이 떨어져 그것을 주워 먹으려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¹¹⁾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포탄의 잔해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전쟁이 아프간 지역의 생태그물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아직 분석된 바는 없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나무와 풀들이 미국폭격으로 싹쓸이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이 지역의 생태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¹²⁾

더욱이 미국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10월 29일 탈레반은 미국이 아프간 공격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12, 15세 소녀와 15세 소년 등 세 명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폭격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호흡 곤란과 내출혈로 병원에 도착한 지 수 시간만에

10) 연합뉴스, "국제연대네스티, 집속탄 사용 중지 촉구", 2001년 10월 27일

11) 연합뉴스, "아프간 주민 고통 갈수록 심화", 2001년 11월 7일

12) 한겨레 신문, "아프간, 나무와 풀도 사라질 위기", 2001년 11월 4일 일요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맹폭격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아프간의 식생면적(나무나 풀이 살고 있는 땅의 넓이)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가 3일 전했다. 아프간 식생면적은 1980년 전체 국토면적의 3% 수준이었으나 옛소련과의 전쟁과 뒤이은 내전, 최근 3년 동안 계속된 가뭄 등으로 이제 0.5% 수준에 불과하다. 미군은 여기에 용단폭격을 가해 '희귀하게 남아 있는' 나무마저 싹쓸이를 하고 있다."

13) 연합뉴스, "탈레반, 미 아프간서 화학무기 사용", 2001년 10월 29일

사망했다고 한다. 미국은 코소보에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바 있으며, 탈레반은 미국이 아프간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폭지역이 영구적으로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¹⁴⁾ 아직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생화학 무기 사용은 비록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한편, 생명이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영구적 죽음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이렇듯 전쟁 폭력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길러내며 먹여 살리는 생산자로서의 여성과 자연을 일차적으로 희생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의 생명과 생존까지 직접적으로 저당잡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에코페미니즘

앞에서 우리는 전쟁이 여성과 자연을 어떻게 극한의 고통 속에 밀어 넣는지 조금이나마 일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비록 부르크를 걸치고 집 안에 갇혀 지내지는 않지만, 전쟁의 상처를 역사로 갖고 있고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의해 직간접적인 폭력을 경험해왔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타인/자연의 고통을 내 것으로 꺼안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동시에 타인/자연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영성의 최고 미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개별적 경험이 집단적 구조 메커니즘의 작동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저항의 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리의 체화된 경험을 떠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전쟁에 관한 입장과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간략히 재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전쟁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 그 자체가 이미 사상자와 피해자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상자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불쌍하고 안됐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사회적 태도는 전쟁의 속성이 반(反) 생명적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전쟁의 비극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또 전쟁당사자들이 민간인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쟁명분의 도덕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무관심과 침묵속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그만두도록 촉구해야 한다.

둘째, 여성과 자연 해방을 전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그 사회구조의 피억압자로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전쟁 이전부터 자신들의 비극적 상황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려왔다. 원조와 연대의 손길을 기다려 온 것이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앞세우고 들어온 오만한 가짜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바램과 상관없이 여성과 자연은 종군기자들의 전쟁 스케치에 연민의 대상으로 가끔 등장하거나, 추악한 전쟁이라는 얼굴에 ‘인도적’ 가면을 쓰기 위해 인용되는 구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될 뿐이다. 이들 피해자들의 비가시성은 부분적으로 선택되어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거나 한 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실제 “전쟁을 그만 두라!”는 이들의 외침은 폭음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명분 뒤에 숨은 저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14) 보스니아 내전 당시 오마르스카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강간 사건이 '인종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국제법정에 유죄판결까지 받아냈던 여성들도, 수용소에 갇혀 있을 당시 외국 언론들의 수용소 시찰이 있었기에 살아남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외부의 작은 관심이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지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혁명 연합조직인 라와(RAWA: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는 투쟁의 선봉장에 선 대표적 활동가들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은 남성 직계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면 합부로 외출할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노동을 할 수도 없는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도 라와 회원들은 비밀학교를 조직해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전쟁 미망인들에게 수공예 일거리를 주며, 아프간 여성들의 참혹한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는 외부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는다.¹⁴⁾

모두가 피난을 떠나는 아프간에서 라와 여성들은 그 땅에 남아, 떠날 기력조차 없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의료지원과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공습에 쫓겨나는 탈레반이나 미국의 등을 업고 다시 수도 카불에 입성한 북부 동맹군 모두 아프간 여성들에게는 끔찍한 지배자들일 뿐이다.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여성들, 오랜 내전으로 극도의 우울증에 고통받는 90% 이상의 여성들,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을 목격한 70% 이상의 어린이들 등 이들의 정신적 황폐함을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전쟁을 끝내는 수밖에.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우리의 손길밖에.

우리의 따뜻한 관심에 힘입어 “아프간 국민들의 전면적인 봉기”(RAWA 10월 11일 성명서)에 의해 탈레반 정권과 유사 정권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민주적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라와처럼 용감한 활동가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평화를 보장받고, 온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출처 : 폼지모(2003), 「곰꾸는 지렁이들」, 환경과 생명

송탄의 미군부대 클럽 거리에서 미국의 아프간 침략을 상기하며

이수진(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외 간사)

송탄의 미군부대 주변 클럽 거리를 돌아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송탄의 미군부대 주변 클럽 거리를 돌아보았다.

지난번 맨 처음 방문했을 때 ‘이 곳이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거리라는 것, 이 거리에서는 모든 남성은 구매자이고 모든 여성은 판매자라고 인식된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클럽 거리를 걷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역할분담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아직 해가지지 않은 클럽 거리에 덩치 큰 미군들이 던지는 시선과 ‘너무 말랐어’ ‘굶었군’ 등의 품평 섞인 말들 속에 우리의 티셔츠마다 야무지게 적혀진 “NO MILLITARISM!” “PEACE FOR WOMAN!” 등의 글귀들은 찢겨져나가고 있었다. 그곳엔 무기가 없었지만 난 총에 겨냥된 사냥감처럼 무력하고 참담했다.

올해 두 번째의 방문에서는 SAFE(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평화네트워크)국제회의에서 갖고 다녀진 ‘여성의 힘과 분노’라는 ‘무기’를 알게 모르게 건네받았던 이유인지 조금은 ‘거만한 사냥감’이 되어 송탄 거리를 걸었다.

한 뒷골목의 티셔츠 제작 가게에 진열된 충격적인 문구와 그림들을 보게 되었다.

쥐뿍에 목이 끼인 채 강간당하는 모습, 이를 죽 에워싼 카득카득 대는 다른 쥐들, 그 위에 새겨진 영어문구 ‘네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린 언제라도 너를 fucking 해주마’ 공군 부대인자라 전투기 등의 무기들이 여성들의 다리사이로 ‘폭격!’ 하는 카툰들.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놓은 여성들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선 미군들의 모

습에 말구름표 '불합격', '이 정도면 합격'...

이 경악스러운 그림들 앞에서 겹쳐지는 것은 폭력적 군사주의, 군사화 등의 거창한 단어들보다 짓밟힌 여성들의 생명의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 즉, 상처들이었다.

아프간 전쟁 1주년에 평화의 행동을

오는 10월 8일(한국시간으로)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공습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이 9월 11일, 테러리즘에 희생된 미국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다시 국제평화의 수호자로서 강대국가를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설파하고 다시 반-테러리즘 전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결코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 '한 편'의 사막지역 버전 전쟁영화'를 전 세계의 안락한 쇼파와 풍성한 식탁에 앉은 이들에게 선보이려 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쟁의 참혹함에 있다. 그 참혹함은 텅 빈 식탁과 텅 빈 영혼에 있다. 그 참혹함은 텅 빈 식탁과 영혼에 또 다시 무기를 퍼붓는 야욕의 굴레에 있다. 그리고 그 야욕은 군사화, 군사주의, 군사주의 문화 등의 그럴 듯한 허구적인 안보논리를 입고 먼 나라가 아닌 바로 이 곳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강제한다.

여성들은 9.11 사태가 발생한 날이 아닌 아프간 전쟁이 터진 날(10월 8일)에 평화의 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군사적·정치적 패권 놀음으로 인간의 고통과 살상이 미디어의 연관 영상과 시나리오 같은 지면의 글줄로 이야기되는 전쟁에 반대하고 구조적 일

상적 폭력과 불평등의 상처를 딛고 넘어선 인간의 삶에서, 특히 남성중심적인 군사주의 논리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억압받는 여성과 아이들, 소외된 삶들에서 행동으로 일궈야 한다.

여성은 일상적 삶 속에서 전쟁과 군사주의를 반대할 것이다. 여성은 평화를 가치로 '주장'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며 만들어나갈 것이다.

출처 : 디지털말(www.digitalmal.com)

2002년 9월 19일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조 현 진 (WAW 회원, 10대)

지난 9월11일, 뉴욕 상공에 두개의 커다란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두개의 비행기가 잇따라 뉴욕 시내 중심부에 굳건히 서있던 두개의 빌딩에 들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떨었고, 이내 두 빌딩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먼지들은 뉴욕전체를 짙어 삼킬 듯한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공포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태가 진정되고, 두 건물이 무너져 내린 자리엔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잔해와 먼지들, 그리고 즐지에 공포 속에서 죽어간 무고한 뉴욕 시민들, 비행기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 한 장면이라도 보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우리 모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고통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 흐느낌, 그리고 뒤따른 전 국민의 애국심과 성조기의 물결 속에 서서히 '복수'라는 단어가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곧바로 그 슬픔을 전 국민을 선동하는 호기로 삼아

증오와 보복을 외치며 전쟁으로 치달아 가는 격앙된 조지 부시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쳐들었고, 테러라는 단어와 함께 회오리치며 몰려오는 격렬한 증오의 연쇄반응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 비행기 테러와 같은 무차별한 살상은 악입니다. 그런 식으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항하여 싸운다고 자동으로 미국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써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구분 자체가 국제관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테러를 저질렀을 만큼 궁지로 내몰았을까. 그리고, 그 배경에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혹하고 비참한 그들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계를 경악시키고, 세계인들의 증오와 욕을 들으며 아랍인은 왜 그토록 '야수의 행동'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걸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내몰고 아랍 땅에 들어온 지 50년,

그 후 6일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한지 34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힘을 합쳐 아랍인들의 권리를 짓밟고,
짐승처럼 취급해왔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조롱하고 능멸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영토에 죽 살아온 팔레스타인사람들,
그리고 2000년 전에 땅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지금에서야 팔레스타인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온 땅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누구의 땅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의 미국 영토는 미국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200년 전에 땅을 빼앗긴 인디언들의 소유일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들의 땅에서 조용히 살고있던
팔레스타인 인들을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탱크와, 전투용헬기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힘없이 돌을 던져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향해
M16소총을 무자비하게 갈겨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돈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힘없이 돌을 던지는
죄 없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아프간 여성이 구걸을 해가며

아이들을 겨우겨우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는 내전으로 무고한 아랍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힘없는 노인들밖에 없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이번에 보복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말로는 테러를 향한,

빈 라덴 개인을 향한 응징이라고 애써 말하고 있지만,
한 국가가 개인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살아오다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죽어갈
불쌍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걱정되지만 합니다.

10년 전에 걸프전만 보더라도,
약 20만의 무고한 이라크인 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죽어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 만약 빈 라덴이 죽었다 치더라도,
미국을 향한 테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미국과 아랍국가들의 근본적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테러들은
계속해서 미국인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뿌리뽑으려는 성스러운 '십자군 전쟁'입니까?
아니면, 단지 분노에 눈이 멀어 별이는 더러운 '복수전'입니까?

잠시 이 문제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봅시다.

미군의 군사자금은 언제나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유지되는 반면 다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게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예로,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싼 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연 간 군사자금으로 265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고, 이 액수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자금을 많이 책정하는 12개의 나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북한,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쿠바의 자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이며, 이라크의 연 군사자금과 맞먹는 액수를 단 2일 만에 써버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B-2폭격기 한대의 가격(15억달러)이면 11,512 채의 보통 가격 새집을 건설하거나, 360,577가구를 위한 일년치 식량을 구입하거나, 125,000명의 보육원 근로자들의 일년치 월급 지급할 수 있고, 397,050명의 젊은이들에게 여름 직업 교육을 실시하며, 224,753명의 4년제 국립대학 재학생들의 일년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 액수들은 더욱 오를 전망이며, 그만큼 미국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식을 전장에 내보낸 몇몇 가정들은 또 한번 이번 테러 사건과 같이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프간에선 볼 것도 없이 많은 인명이 죄 없이 희생될 것이며, 안 그래도 잦은 내전으로 인해 하루 하루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절망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수많은 반전 시위가 한국, 일본, 홍콩, 영국 등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있습니다.

전쟁이 결코 최선책이 아니란 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른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전쟁을 당장 중지하라고.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보복전 보다는, '왜 이런 끔찍한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테러가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내던지는

끔찍한 테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미국은 자신에게 물어보고
지난 과거를 냉정하게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테러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아프간 사태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과 WAW의 역할

-원(소녀들의 페미니즘)

지난 2001년 10월 10일, 나를 비롯한 십여명의 <소녀들의 페미니즘> 멤버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에서 주최한 건널목 시위에 참가했다. WAW본부와 적극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소녀들은 나름대로 행사장에 일찍 도착해 피켓을 들고 있기도 하고 <언니네> 조지혜씨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나는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가 촬영을 했다. 신촌 시위의 마지막쯤, '아침이슬'을 개사한 노래 부르기 시간이 있었다. 사회자 쪽에 서있던 세 명의 소녀들은 마이크 하나를 잡고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사회자는 시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을 요구하며 간간히 소녀들 쪽을 돌아보고 "빨라 크게 불러!"라든가 "더 크게!"라며 다그쳤다. '아침이슬'이라는 노래의 성격이나 반전의 내용으로 바꾼 가사는 말 그대로 '시위'적인 느낌이어서 사실 좀 어색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웃으며 불렀다. 신촌에서의 시위가 끝나고 소녀들은 밥을 함께 먹으며 그 날 행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세 명의 소녀 중 누구도 사회자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사회를 보셨던 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반말을 하며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을 내리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중 누군가와 매우 친한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지만 참, 우리가 되게 어려 보이나 보다... 하면서 씩씩하게 웃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약 한 달이 지난 요즘, 아프간 여성 영상제의 토론회 관계로 다시 WAW와 연락하게 되었다. 소녀들의 페미니즘 중의 누군가가 발제를 해주었으면 한

다는 내용으로 어느 남자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토론회의 주제가 뭐냐고 묻자 “전쟁 여성 평화예요.. 좀 진부하죠?”라고 했단다. 기획팀 스스로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진행될 시들시들한 토론회에 과연 나가야 하는 것일까 싶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발제 의뢰에 응했다. 며칠이 지나 발제문 청탁 때문에 WAW의 다른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내가 제일 늦게 섭외되었기 때문에 다른 발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발제문을 썼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다. 발제자들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대학원생이 한 명, 10대들이 지원씨까지 포함하면 3명이에요. 고 3이 둘이구요, 그 밖에 대학생이 한 명이네요. 프리퀀에 있는 와우 커뮤니티가시면 고 3인 두 명 중에서 한 명의 글을 보실 수 있고, 대학원생 것은 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학술적인 내용일 테니까.”

소녀들의 페미니즘은 WAW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 공식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 있고, WAW를 지지하는 뜻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내가 시위에서 겪었던 일이나 토론회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행여 WAW에 대한 시비 걸기나 개인적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로 곡해되지 않길 바란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전’을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나이/학력 차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우리들이 전반적인 문화·교육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과연 알고 있을까. 건널목 시위 때 “아이가 어른을 좀 약올렸다고 그 어른이 아이를 때리려는 것을 우리는 말려야 되겠습니까, 냐뉘야 되겠습니까?”라던 민우회에서 온 어느 분의 말은, 아프간 사태에 대한 개인의 완전히 잘못된 이해 수준을 넘어서 WAW가 가장 조심해야 할 ‘위치 짓기’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발언이다.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억압받는 ‘민중’이 다 같은 ‘민중’이 아니듯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도 사실 다 같은 ‘여성’이 아니다. 민우회에서 오셨다는 그분의 순진한 생각처럼 우리는 아프간을 불쌍히 여겨 미국이 설치하는 것을 짚짚하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의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강간의 나라, 종군위안부 문제를 미국 재판부에 소송 걸게 만드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차도르에 몸을 숨기지 않았다고 목숨을 잃거나 어제는 애인이 죽고 오늘은 친구가 죽었으니 내일은 내가 죽을 거라는 공포 속에 눈을 감고 뜨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프간 여성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나도 부르카를 두들테니 고통분담을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다. 좀 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 또 누구인가? <끼리끼리>와 <여성신문>, <소녀들의 페미니즘>은 같지만 다르다. 이 모든 차이에 대해, 또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아프간 여성들과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타자로 규정되는 여성들의 타자화된 행동과 그 한계로서의 “반전”

나는 개인적으로 ‘반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다는 WAW의 래디컬하고 사려 깊은 주장 끝에 붙어있는 ‘반전’이라 해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다. ‘반전’이라는 단어에는 마치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이니까 학술적인 글을 쓰고 너는 10대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류의 에세이를 쓰라는 식의 세뇌된 위치 짓기의 흔적이 역력하다. 전쟁이라는, 국가·권력·경제·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최대한의 반동적인 발언은 “저는 전쟁에 반대합니다”이다. 아기를 낳아 기르고 가정을 지키는 여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을 싫어하지만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그저 남자가 하는 일에 조용히 반대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전 운동이 피해가야 할 응징이든 실생활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으로서의 세계 평화나 극우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반미 의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반전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척 신중하게 또 과감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주장은, 주체적 행위자인 ‘남성’의 주체적 행동인 ‘전쟁’에 대한 영원한 비주류이자 타자인 ‘여성’의 소극적이고 힘없는 ‘반대’로 치부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인권 존중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난데없이 부시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달라 말하고 김대중에게 부시 편을 들면 안 된

다고 이야기한다. 반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하고 징그러운 '힘'들에게 찾아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억압받고 무력한 여성으로서 말하기"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어리석고 힘있는 남성으로서 행동하기"가 의례 그렇듯, 부시도 김대중도 우리의 말을 무시했다. 어쨌든 이미 전쟁은 일어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탈레반 정권은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 부시와 김대중과 언론을 향해 반전을 외쳤던 우리는 언제나처럼 뒷통수를 맞은 건가? 이제는 누구를 향해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아프간 사태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 관한 고찰과 WAW의 역할

WAW는 전쟁과 폭력과 반전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제시했으며, on/off line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는데 성공했고, 흩어져 있는 여성 단체들을 하나의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제는 어렵게 모은 힘과 관심을 바탕으로 좀 더 밀도있고 강력한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여성들은 민족의 전통이라며 스스로 부르카를 입는다. 또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혹은 동네 남자가 훌륭한 테러리스트가 되어 미국을 무찔러 조국을 지켜내길 원하며,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해내도록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는다. 우리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아프간 여성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일까? 국가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는 백이면 백 가부장제의 수호와 불타는 마초이즘에 석유를 부어넣을 것이니, 하루빨리 여성주의의 세례를 받아라?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과 마을에 즉 그들의 나라에 어느 날 유대인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이 말하길, 성경책의 어느 부분을 잘 뒤져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은 사실 우리의 땅이니 그런 줄 알고 하루 속히 꺼져라! 멍달아 미국도 달려

오더니 빨리 자리 비우라고 소리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며 불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다. 하루아침에 멸망한 집과 나라를 빼앗기고 난민이 된 아프간 사람들에게 부르카를 두르고 수업을 기르는 것, 즉 아프가니스탄의 민족적 전통을 되살려 어떻게든 이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비록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탈레반 정권이 합동으로 설치해놓은 밧과 부시 행정부가 떨어뜨리는 폭탄에 아프간 여성들은 더욱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나이키가 적힌 티셔츠를 사 본 경험이 있고 맥도날드 새우 버거가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나로서는, 어떤 비상사태를 맞아 본의 아니게 가정이나 국가에 강한 소속감을 가져 본 일이 없는 나로서는 솔직히 아프간 여성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부로 정의 내릴 자신이 없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부르카인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지, 탈레반 정권인지, 미국인지, 그들의 삶인지, 혹은 죽음인지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듯 아프간 사태를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반전 운동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정립하는 일은, 아프간 여성들과 우리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속적이고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WAW는 국내에서 연대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성주의·인권·평화에 대한 다양하고 풍성한 목소리들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도 전쟁과 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알리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부시 행정부에게가 아닌, 미국의 언론과 대중에게 제 3세계 한국 여성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하고, 더 이상 탈레반 정권에게가 아닌, RAWA를 비롯한 아프간의 여성들과 소수자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마주잡을 손이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나 역시 WAW와 연대하고 있는 소녀들의 페미니즘의 일원으로서, 또 여성주의적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개인으로서 WAW의 행보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테러리즘은 테러리즘을 낳는다

소녀들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제도교육으로 더럽혀진 숨막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길을 가며 멋진 꿈을 꾸는 소녀들이 만든, 10대 여성들을 위한 단체이다. 소녀들은 아프간 사건을 “테러리즘은 테러리즘을 낳는다”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에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일상으로 보고 자라며, 위대한 테러리스트가 되어 세계무역센터를 폭파하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아온 남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도 되지 못할 여자라 잘난 남자들을 뒷바라지하며 매순간 눈물 흘리는 것이 꿈꿀 수 있는 삶의 전부인 여자들. 죽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담은 작은 불빛 하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녀들은 기도를 한다.

다가올 2001년 12월 22일, 소녀들의 페미니즘은 세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명상해온 신학자 정현경이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전하는 “미래에서 온 편지”를 위한 출판 기념회와 남성적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삶을 꿈꾸는 영혼들을 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 이 글은 2001년 11월 17일 WAW의
‘아프간 여성 영상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편집자주)

우리의 관심을 함께 한다면

진경(고3)

수능시험 이틀 전. 우리 반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TV를 통해 월드 시리즈 7차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우승이 확정되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흥분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은 몹시 불편해졌다. 스포츠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동과 희열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의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저 아이들은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9월 11일에 테러가 터졌을 땐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어졌고, 전 세계가 경악하며 테러 사건과 뒤이은 미국의 보복 전쟁에 온 관심을 쏟았다. 내 주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 오면 먼저 TV를 켜서 상당히 오랜 시간 뉴스를 보기도 했고, 도시락을 먹을 때도 빠지지 않고 모두들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입시라는 현실이 최우선의 문제였기 때문에 테러나 전쟁에 대한 흥분된 분위기는 금새 시들해졌고, 얼마 안 가서는 거의 잊고 사는 듯 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능이나 입시 문제로 인해서, 온전히 그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걸 곧 깨달을 수 있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시험이 며칠 남았는지에 관계없이 월드 시리즈는 봐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쓰러지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조금도 상관없는 ‘남’일 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외면할 수 있었나보다.

불과 수 십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힘겨운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곳 중의 하나인 이 땅. 이런 땅에서 자라는 우리 10대들에게 어떻게 전쟁과 그로 인한 끔찍한 상황들이



남의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인가. 무차별 폭격에 희생되는 그곳의 어린이들의 불쌍한 모습이 보여질 때도 그저 우리 할머니대의 괴난 장면만을 떠올리며 옛날 이야기 일 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함께 해야 하며,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내주어야 한다.

전쟁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뿐이다. 조금씩 나아졌던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이 구 소련과의 10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허물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지금 미국의 공격이 얼마나 잔인한 짓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런 과정을 또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아찔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현재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몇 십 년 후까지, 아니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이반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간의 여성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 미국은, 탈레반 정부는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힘과 권력을 좇으며 아프간을 완전히 부수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미국. 아프간에서 폭격으로 죽어가는 난민들과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뉴욕 시민들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프간 여성들의 삶이 테러와 탄저병의

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자신들의 어머니, 딸, 여동생들의 삶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음을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을까. 전쟁으로 더욱 심해질 강간, 폭력, 억압, 차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아프간 여성들에게도 마땅히 주어져 있음을, 그런 명백한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뻔뻔스럽게 모른척 할 수 있을까.

전쟁이 없을 때에도 아프간을 비롯한 이슬람권 지역의 여성 운동은 힘겹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싸움이다. 그런데 지지를 보내고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영웅주의를 내세우며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미국이, 그리고 미국을 돕는 힘센 나라들이 그 힘없고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당장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테러로 인한 피해의 보복이다,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다'라는 변명도 이제 그만이다. 그 어떤 말로도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수능시험이 끝난지도 며칠이 지났다.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는 애들도 있고, 빨리 잊고 즐겁게 노는 애들도 있고, 일찌감치 재수를 준비하겠다는 애들도 있다. 모두들 제 각각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잊은 듯하다. 내가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는 걸 알기에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뭔가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야 할 그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모인다면 그 먼 땅에서라도 작은 힘을 느낄 것이다. 관심은 곧,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질 밑바탕이라 믿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01년 11월 17일 WAW의 '아프간 여성 영상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편집자주)

5

우리 이름으로는 안된다

- 115. '아직' 살아있는 그녀들, 아프간 여성혁명연합을 만나다(타리)
- 12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RAWA성명서
- 125. 아프간여성혁명연합 RAWA의 9.11 1주기 성명
- 130. 전지구적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전지구적 연대를 호소하며(바우넷 재팬)
- 135. NION(Not In Our Name) 저항의 맹세
- 137. 양심의 선언문 : 우리 이름으로는 안된다
- 141. 9.11 유가족이 백악관에 보내는 편지
- 143. 이라크의 여성들에게(코소보 여성 네트워크)

'아직' 살아있는 그녀들, 아프간여성혁명연합(1)을 만나다.

타리(WAW회원)

나는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²⁾

1987년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암살 당한 RAWA의 지도자 미나(Meena)를 비롯한 RAWA의 활동가들은 탈레반을 비롯한 아프간 지배세력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을 인터넷을 근거로 하여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다. 1977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녀들은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과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9.11 테러이후에 비로소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RAWA는 '미국의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이 아프간 여성의 상황을 낮게 해준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WAW활동을 하면서 RAWA를 접했는데 그녀들이 전해주는 소식과 시각은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내가 선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구 소련과의 10년 동안의 내전 후 탈레반 정권의 집권, 그리고 '평화의 전도사'를 자처한 미군을 겪으면서 여성에게 좋은 전쟁/나쁜 전쟁, 좋은 군대/나쁜 군대의 구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전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의한 보복전쟁이 아프간 여성에게 자유를 가져왔다는 주장(부르카에서의 '해방', 거리를 마음대로 걸을 자유 등)이 국제사회와 일부 여성들을 설득할 때, 아프간 여성의 인권이 전쟁의 정당성으로 이용되는 상황과 공습과 함께 제공된 구호물자가 정치적 이유가 없을 때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RAWA의 주장("아프간의 여성인권과 민주주의는 '민중' people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을 되새기게 한다.

1) RAWA :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2) Meena "I've found my path and will never return." (<http://rawa.fancymarketing.net/meena.html>)

이것은 인종과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른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글을 통해 RAWA의 문제의식이 페미니스트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소개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

RAWA의 설립과 9.11테러까지의 활동과정³⁾

RAWA는 아프간 여성 지식인들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설립된 여성들의 독립적인 정치 사회적 조직이다. 1977년 설립된 이래로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와 탈 근본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대안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아프간 여성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시위를 비롯한 정치활동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활동을 함께 펼쳤다.

그러나 1978년 4월 소련을 등에 업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979년 12월 소련이 침공을 감행하자 RAWA는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소련에 대한 전쟁을 성전으로 비유하며 근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10년 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RAWA는 소련과 근본주의자들을 모두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탈 근본주의를 부르짖었다. 1992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는 여성의 권리가 급격히 사라졌고, 나중에 탈레반에 의해 즉결로 거부되었다. 또한 “간 내전동안 여성의 몸은 전쟁의 약탈물로 취급되어 그들의 몸은 교전중인 집단을 위한 또 다른 전쟁에 놓이게 된다. 보스니아 국경의 잔혹 행위는 아프가니스탄의 잔혹 행위와 비견할만하지만, 불행히 이 맥락(보스니아)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듣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⁴⁾

두 세력이 아프간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울 때 RAWA는 그 두 세력을 모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층 더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RAWA의 두 세력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는 아프간 어느 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급진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때

3) <http://rawa.false.net/rawa.html>

나(Meena)를 비롯한 핵심활동가들이 암살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파얌-에-잔(Payam-e-zan)’이라는 잡지를 두 가지 언어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부르카에 카메라와 컴퓨터를 숨겨서 아프간의 상황과 여러 형태의 폭력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9.11테러이후에 국제사회와 페미니스트들이 아프간의 실제상황과 아프간 여성을 비롯한 기층민의 삶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1992년에 소련의 폭두각시 정권이 무너짐에 따라 RAWA의 정치활동의 초점은 근본주의자들에 반대하는 것이 되었고, 특히 탈레반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정책과 폭력에 반대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내전의 전적인 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었지만 재정난과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활동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한다.

9.11테러이후 RAWA의 입장: “우리는 탈레반도, 오사마 빈라덴도 아니다.”

RAWA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해 쓴 성명서에서 탈레반과 미국을 비판하며 탈레반 정권은 아프간 국민들의 봉기에 의해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테러 보복전쟁은 20년 간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아프간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며 미국이 겨냥하는 총구는 탈레반에 의해 억압받아온 대다수의

4) 탈레반의 여성 제약법 몇가지

1. 집 밖의 여성 노동은 완전히 금지하여 여성들은 대부분의 전문직 등에 지원할 수 없다.
2. 아버지, 남자형제, 남편과 같은 가까운 가족(마흐람 mahram)이 아니면 절대 바깥에 나갈 수 없다.
3. 남자 상인과 거래할 수 없다.
4.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없다.
5. 학교, 대학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공부할 수 없다.
6. 여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는 부르카(Burqa)라고 하는 긴 베일을 착용해야 한다.
7. 위(6번)와 같은 옷차림을 하지 않는 여성은 채찍질, 태형, 언어 폭력이 가해지고, 남성과 동반하지 않는 여성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는다.
9. 결혼하지 않고(혼외) 섹스를 해서 고발당한 여성은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한다.
12. 크게 웃을 수 없다. (이방인이 여성의 목소리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13. 결혼 때 또각 소리가 나는 하이 힐을 신을 수 없다. (남성은 여성의 발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18.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없다. 탈레반 용어로 이 색은 “성적으로 유희하는 색상”이다.
20. 여성은 강 옆이나 공공 장소에서 빨래를 할 수 없다.
22. 여성이 자기 아파르나 집의 발코니에 나와서는 안 된다.
23. 모든 창문에 페인트칠하는 것은 의무다. 집 밖에서 여성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
24. 남성 재단사는 여성의 몸 치수를 재서도 안되고, 여성의 옷을 재단해서도 안 된다.
25. 여성 대중폭락당은 금지되었다.
29. 신문이나 책에 여성의 사진이 나와서는 안되며 집과 가게의 벽에 걸려서도 안 된다.

www.rawa.org

국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RAWA는 탈레반과 반(反) 탈레반을 주장하는 북부 동맹 모두가 평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고, 미국의 보복 전쟁은 (전쟁, 그 자체가 그러하듯) 인권에 무관심하며, 그것은 테러로 희생된 미국민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RAWA는 "Our Standpoint"⁵⁾에서 국제사회와 근본주의세력을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있다. 유엔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슬람의 어떤 세력과 협상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을 멈추라고 주장한다. 아프간의 땅은 일부 무장된 군벌들의 재산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아프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프간 내전에 관계하지 않았고 어떤 군벌도 지지하지 않았던 나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탈레반도, 북부동맹도 아닌 새 정부를 형성하고 아프간 군벌을 무장해제하고, 일년 안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열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이 아프간의 인권상황을 낮게 한다고 주장했던 부시와 그들의 동맹국, 일부 여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준다.

RAWA가 그리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 해야하며 사상, 종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이며,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수세기 동안 이슬람교를 믿었던 아프간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슬람교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왔던 것을 비판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RAWA는 탈레반이 여성에게 강요한 부르카에 대해 비판한다. 탈레반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여성에게 부르카를 강요했지만 코란 어디에도 부르카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으며 부르카는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부르카를 거부하는 것은 근본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규율이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에서 부르카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제약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한 것은, 그것이 유지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인다. 가부장적인 종교적 논리

5) <http://rawa.false.net/points.html>

'아직' 살아있는 그녀들, 아프간여성혁명연합을 만나다.



가 권력화 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비하와 폭력은 합법과 규율의 형태를 띤다.

RAWA의 활동은 여성이 남성친척의 동행 없이는 길을 걸을 수 없고 남성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없으며, 여성이 사는 집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창문을 막아야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시달리면서도 부르카를 벗지 못하는 사회에서, 목숨을 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주장은 국가와 종교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구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에 따라 개인이 선택하는 이슬람교를 얻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것은 20년간의 종족간, 외세에 의한 전쟁을 통해 겪은 삶과 이슬람의 권력화된 교리에 의해 폭력과 죽임을 당한 경험을 통해서 절실한, 목숨을 건 투쟁이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이슬람교가 미개한 종교로 비하되고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인해 탈레반정권이 무너진 후 외부로부터 주어진 '부르카에서의 자유'가 아프간 땅에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준다.

대신, RAWA는 9.11 테러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미 미국에게 가장 신뢰하기 힘들며, 가장 잔인하며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여성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었다"고 하고 있다. 이미 같은 민족에게 모든 형태의 폭력을 행사한 후이기 때문에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데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테러세력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테러가 발생하면 '미국민의 인권을 위해' 보복공격을 해왔다. 이러한 보복공격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향했다. RAWA는 이렇듯 너무나 자명한 가치와 눈에 보이는 '악의 축' 부시, 테러리스트, 근본주의자, 반민주적이고 반여성적인 권력에

대항해 매일 매일의 생존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9.11테러 1년 후, 누구의 말이 옳았는가.

RAWA는 9.11테러 1주기 기념 성명서⁶⁾에서 “폭력, 빈곤과 기아,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간 인들은 인류역사상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최신무기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탈레반 정권과 알카에다는 그들의 전투자원에 큰 손실을 입지 않은 채 제거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테러위협을 불길한 그림자와 근본주의의 테러리즘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고 밝힌다. 그러나 9.11이후 비로소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아프간의 땅은, 더 극심한 기아의 땅이 되었고 탈레반 정권과 같은 근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는 북부동맹은 아프간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으며, 원조를 위해 아프간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의한 성폭력과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는 아프간 여성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아프간 사람들의 권리를 북부동맹에게 넘겨준 미국을 비롯한 세력에 의해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어떤 종류의 희망도 없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근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한 ‘여성부’를 만들거나 몇몇의 상징적인 여성들을 정부 고위직에 앉히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RAWA의 주장을 다시 경청하도록 이끈다. 또한 이란, 알제리, 수단 등과 같은 나라에서의 테러위협이 없어지려면 국제적인 반테러 동맹의 실제적인 연대행동을 통해서 세계의 근본주의와 파시즘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으로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한 증언이다. 전쟁이 전체주의, 지배자들의 이익에 기반해서 일어나고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래된 논리인 군사주의가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성적 소수자들을 일상적으로 차별하는

6) <http://rawa.fancymarketing.net/documents.html>

논리임을 알고 있다. 살상의 주체에서 배제된(스스로 거부한) 여성과 소수자는 실제적인 피해자이자, 전쟁의 논리로 조직된 사회에서 잠재적이고 일상적인 피해자이다. 아프간 땅의 여성과 한국 땅의 여성은 이런 의미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음’ 자체가 근본주의의 저항의 의미를 띠는 아프간의 여성과 나의 삶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RAWA를 비롯한 아프간 여성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기울여야 할을 느낀다. 미국의 ‘대테러 보복전쟁’은 다시 이라크를 겨냥하고 있고, 근본주의와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악의 축’으로 지목된 북한 역시 군사주의적인 논리에 의해 조직된 사회이자 여성과 소수자 차별, 기아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아프간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그녀들을 생각한 며칠동안, 무장한 이슬람인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꿈을 꾸고 그녀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참혹한 사진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잠을 자는 일이 쓸데없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전하며 이 자리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 준비 사회’에서 탈레반적 억압의 현실들을 드러내고, 직면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그로 인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여성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며, 그러한 고통을 가한 남성들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⁷⁾

그녀들은 말한다, ‘너의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라’고....

* 이 글은 WAW회원들의 번역, 정보공유, 토론과 함께한 행동들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썼습니다.

출처 :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서른 한 번째

7) 조순경,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IF』 2001년 겨울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RAWA 성명서



탈레반 정권은 아프간 국민들의 봉기에 의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본주의자 사형집행인들의 반역 행위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대한 전쟁과 파괴라는 괴물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협조자 탈레반 정권에 대한 국제 단위의 연합을 형성하여, 9월 11일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 공격이 탈레반과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군사기지에 한정될 것이라고 언하였지만, 우리는 이 공격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성과 남성, 어린이, 젊은이와 노인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7일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

며, 지하드와 빈 라덴, 탈레반을 길러내던 미국과 그 연합국들은, 오늘에 와서는 북부동맹의 칼날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그들은 지하드 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걱정과 불안 속으로 우리 국민들을 몰아 넣고 있습니다.

지하드와 탈레반 하에서 겪었던 엄청난 재앙을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아프간 국민들은 전 국왕의 복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 국왕이 북부동맹이나 "온건한" 탈레반에 힘입어 돌아온다면,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그 자신의 명망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울 정부의 안정과 성공조차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탈레반의 중세적 지배 하에, 어떤 아프간 국민들도, 그리고 어떤 명망 있고 의식 있는 이슬람교도도 아프간과 이슬람세계를 미국에 대항한 성전으로 이끄는 탈레반 정권의 민족주의적 체스추어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탈레반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아프간 국민의 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부동맹 살인자들의 "반 오사마 빈 라덴" "반 테러리즘" 행위 역시 거부합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나지브의 허수아비 정권이 무너진 후 5년 간의 최악의 테러리즘과 부정으로 점철된 세월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지하드 자신들이 압둘라 에잠과 오사마 빈 라덴의 수하였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동맹은 마치 배고픈 늑대들마냥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총에 힘입어 카불을 함락시키고 그들의 "정복"의 깊이와 넓이만큼, 예전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며, 두 번째 "아랍연합"에서의 지위를 흥정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설립을 망칠 것입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공격과, 늘어만 가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탈레반 정권에 계명분을 제공해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중동지역과 전 세계에서 근본주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탈레반과 알 카에다 세력을 근절하고 민주적 가치에 바탕한 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아프가니스탄을 약탈과 범죄, 국가적 반역을 그들의 불안정한 실재의 주요소로 하는 이들 세력에 넘겨주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탈레반과 오사마 빈 라덴 집단의 철저한 제거를 위해 일어서서, 세계로 하여금, 피곤에 지치고, 상처받고, 비탄에 젖어 버려진 우리 아프간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범죄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아랍 사람이든 아니든 그 어떠한 테러리스트도 “명예로운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해야 합니다.

오직 전면적인 봉기만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덮었던 재앙의 반복을 막을 수 있고, UN 평화유지군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 특히 근본주의적 형태의 간섭이 없을 경우, 모든 민족집단과 종교들은 근본주의자들의 악한 밑그림에 따르지 않고, 자부심 강하고 자유로운 아프가니스탄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데에 모두 단결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프간여성혁명연합(RAWA)은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전 국왕에게,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아프간에서 집단 봉기를 조직하고 아프간 국내외의 적들의 계획을 꺾는데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프간 국민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아프간여성혁명연합 (RAWA)
2001년 10월 11일

(번역: WAW번역팀)

아프간여성혁명연합 RAWA 의 9.11 1주기 성명 <근본주의는 인류문명의 적입니다>

RAWA는 9.11테러에서 목숨을 잃은 죄 없는 생명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테러와 억압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온 세계인과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아프간의 여성과 아이들, 남성들이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 하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10년 간 아프간의 사람들은, 특히 아프간의 여성들은, “북부동맹” 근본주의자들의 잔혹과 속박에 의해, 그리고 탈레반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시기 동안 서구열강들은 그 범죄자들과 “함께 일할” 방도에만 골몰했습니다. 그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지배 아래에 매일 매일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우리 아프간 사람들에 대해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인권과 민주적 원칙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일상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중동의 석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그 종교적 파시스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9.11의 비극 직후 미국은 그들의 예전 고용인들을 벌하기 위해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섰습니다. 피흘림과 황폐함, 굶주림과 빈곤, 기아에 고통받던, 운 나쁜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꿈쩍없이 불들린 채로 인류역사상 가장 발전된 최신무기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9.11의 비극에서 잃었던 생명보다 더 많은 죄 없는 생명들을 우리는 잃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즐거운 혼인잔치마저도 폭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 정권과 알카에다는 그들의 전투자원에 큰 손실을 입지 않은 채 제거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테러위협 of 불길한 그림자와 근본주의 테러리즘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약 재배나 군벌주의, 그 어느 것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황폐해진 나라에는 평화도, 안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아와 성매매, 약탈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과거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외국인 보디가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대통령의 신변안전조차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테러들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불들려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 일까요? 왜 9.11 이후 요란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 RAWA가 반복해서 말해 왔던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1. 아프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 상황은 "프라이팬에서 나와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에 비유할 만 합니다. 탈레반 테러리스트들 대신 "북부동맹"의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하드와 탈레반 근본주의자들은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그저 교파가 다른 정도일 뿐입니다.
2. 지난 약 20년의 시간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간 근본주의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와 몰라 오마르,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또 다른 근본주의자들의 보호 아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고, 아프간 국민들과 다른 인류에 대한 또 다른 계락을 꾸밀 수 있습니다.
3. 이슬람 국가들에 만연한 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와 같은 현상들은 오직 대중 봉기와 민주적 세력의 강화에 의해서만 뿌리뽑힐 수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과 몰라 오마르와 같은 사람들을 그저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북부동맹"은 탈레반과 알 카에다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모두 제거된다면 이제껏 자신들을 지원해 주던 아프간 내 외국 세력들의 존재 이 유 역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중봉기를 통한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전복을 외쳤던 RAWA의 슬로건의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대중봉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탈레반과 알 카에다는 자신들의 별다른

전력 손상 없이 "북부동맹" 형제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북부동맹"은 카불을 두 번째 점령하면서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어떤 종류의 희망도 없애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모든 종류의 불안정, 즉 의회(Loya Jirga)의 불명예스러운 보안상태, 만연한 테러리즘, 억압된 민주주의, 심각한 인권침해, 극심한 기아와 성매매, 늘어만 가는 아편 재배, 국가재건의 실패, 그리고 셀 수 없는 다른 재앙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범죄는 전세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만연해 있습니다. RAWA는 탈레반이든 지하드이든, 근본주의자들이 동등한 인간인 여성에 대해 보이는 격렬한 증오감에 대해, 그것이 그들 개인의 불행한 가정환경이나 병적인 마음상태와 같은 데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의 종교적 파시즘의 색채를 띤 이데올로기의 세계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군사적 힘을 껴미한 채 영속하는 한, 광적인 여성혐오와 그것과 연관된 무수한 사회적 재앙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성부"를 만들거나, 몇몇의 상징적 여성들을 정부 고위직에 앉히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부패와 종교적 기반, 종족적 배타주의로 형성된 틀 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을 바라는 것은 자기기만이거나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RAWA는 "북부동맹"이 다시 정권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예언들이 맞아떨어졌다는 데 대해 비애를 느낍니다. 그때 "북부동맹"이 탈레반보다 낫고 그래서 선호할 만하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프간 사람들에게 그 해로운 설교들에 대해 사회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은 오직 근본주의 지배를 전복한 기초 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주의와 그 지지자들에 대항한 여성대중의 조직적이고 비타협적인 캠페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북부동맹"에게 비굴하게 고개 숙여 자리를 얻어보려 하는 몇몇의 정치조직들은 RAWA의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태도와 관점 때문에 우리가 "모택동주의적"이고

“급진적”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프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RAWA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그 말만 많은 공모자들이 틀린 것입니까? 부통령과 내각 수상의 암살, 그 암살에 대한 수사 금지, 집단 학살된 묘지들, 여성가수들과 예술가들, TV 무용상영의 금지, 미디어의 검열, 제멋대로의 교령 선포와 여성들에 대한 배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집단성폭행, 아마드 샤 마수드의 우상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인내와 소극적 대처는 오직 그들에게 더 득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지난 10년 간의 근본주의에 대항한 RAWA의 투쟁 경험은 우리에게 이 나라의 가장 구석에까지 끈기를 가지고 여성들을 조직하도록 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근본주의에 대항하는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3000명이 넘는 희생자와 수천의 애도와 슬픔을 가져온 9.11 테러의 비극이 전 세계에 근본주의의 해악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알제리, 수단, 그리고 그 같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말입니다.

근본주의는 전 인류의 적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세계 반테러 동맹”은 그 모호성과 목적과 동기의 불분명함에 의해 그 가치가 흐릿해져 왔습니다. 세계 강대국 사이의 대립은 그 파국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의 근본주의에 대항하는 개인들과 사회정의를 위한 단체들은 모두 연대하여 근본주의를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911의 비극이 미국이나 또 다른 세계 어느 곳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RAWA는 이제껏 전 세계의 테러에 대항하는 단체들이 보내 준 심정적, 물질적 지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테러리즘에 대항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투쟁을 위해, 우리의 연대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9.11의 비극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공중폭격에 의해 목숨을 잃은 우리의 ‘반 탈레반, 반 북부동맹’ 동지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채 애통해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와 국제적 연대에서, 근본주의 파시즘에 대항하는 움직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알카에다, 탈레반, “북부동맹”을 거부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근본주의 반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아프간 여성의 투쟁에 승리를!

근본주의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국제 연대여, 영원하라!

2002.9.11

아프간여성혁명연합 RAWA

(번역 : WAW번역팀)

전지구적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전지구적 연대를 호소하며

바우넷 재팬 의장
마쓰이 야요리
9월 17일

긴급 호소

우리는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보복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전쟁 준비를 철회해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
3. 유엔은 이번 테러 공격을 자행한 범인들을 고소하고 처벌하게 위한 국제 범죄 법정을 설립해야 한다.
4. 아랍 사람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공격은 중지되어야 한다.
5. 테러리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의롭고 상호 공존하는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그간 우리 바우넷 재팬과 동지들은 지난 20세기 일본이 자행한 전쟁 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 우리의 목적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21세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 첫 해에 발생한 이번 테러리스트 공격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미국 정부의 보복 전쟁 선언에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스러진 수천의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큰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번 공격은 하루 동안 그렇게 많은 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참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방위 정책이, 실은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군사력과 그에 기반한 경제적 파워의 중심부가 너무나 어이없이 파괴된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범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전쟁 도발 행위"라고 선언했으며, 이에 대한 응징으로서 군사적 보복을 발표하고 미국은 이 같은 "선 대 악", "문명 대 야만"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힘에 의한 응징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번 테러 공격은 국제적 범죄이지, 전쟁이 아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는 인류 전반에 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 범죄 법정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 즉, 테러를 감행한 사람들과 공범자들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역할을 무시하고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단지 테러리스트 집단 뿐 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와준 국가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공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400억달러의 예산이 군사 행동 비용으로 할당되었다. 이러한 부시의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미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폭력은 폭력으로 응징한다는 미국 지도자들의 신념에 반대한다. 폭력은 테러리즘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폭력은 단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평화적 방법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다.

현재 미국의 미디어들은 제 3세계를 향한 무력 사용을 마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왜 미국 시민들이, 보복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미디어의 표적이 되는지를 의아해 하고 있다. 이번 비극의 희생자들은 자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희생자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세

기 수백 만 명의 다른 아시아 민중들의 죽음은 물론 많은 일본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이유 없는 침략성을 상기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걸프전에서, 남미와 아시아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면서, 수단과 구유고에 대한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학살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나라의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무력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 핵 확산 금지, 국제 범죄 법정 설립,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유엔 세계 회의의 이슈와 같이 국제적으로 상호 노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전세계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 심지어 증오를 느끼고 있다. 우리는 또한 미국 자체가 그 동안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무기를 제공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테러 공격의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명 없이는, 테러리스트 공격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여전히 약자의 최후수단으로 남을 것이다.

한 아시아 국가의 여성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했다: “나는 미국인들이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과연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녀는 그녀의 조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천 명의 미국인의 죽음에 분노를 느꼈다면, 그들은 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단 말인가? 이미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경제 봉쇄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행동은 분명 더 많은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상군이 파괴될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이 슬픔에 빠지듯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경험할 것이

다. 테러리즘의 희생자들이 진정 이러한 야만적인 복수를 원할까? 또 다른 비극에 의해 그들의 영혼이 평화로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증오에 가득한 국가주의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서구 세계의 삶이 소중한 것만큼 비서구 사회의 삶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과 인권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 있는 아랍계인들이 심각한 인종 차별적인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내 양심적인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들”을 접하면서 용기를 얻기도 한다. 우리는 전쟁에 열광하는 국수주의적 분위기의 한 가운데도, 용감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지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슬람교도 같은 남반구 민중에 대한 억압의 표현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에 대한 나토의 지지는, 과거 그들의 식민지 국가에 대한 일종의 양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부정직한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력 사용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지지하는 행동을 서구의 시민사회가 취할 것을 희망한다.

일본 시민으로서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고이즈미 행정부는 이미 주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식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자위대의 긴급 출동 시스템과 배치(군대의 展開)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의 우익 국가주의자들은 이번 비극에서 “미일 방위 협력 가이드 라인(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을 미국의 군사 행동에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 발발을 국가적 이익으로 삼으려는 전략의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는 주일 미군의 기지와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상황이 군사주의화와 전쟁 협력으로 진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어떠한